

번호: PO-MA-007					
제 목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만족도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ccording to Household Economic Status				
저 자 및 소 속	김개영1), 이윤환1), W. Courtland Robinson2), 이명근2), 이옥철3), Gilbert M. Burnham2) 1)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존스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 3)적십자 간호대학 Gaeyoung Kim1), Yunhwan Lee1), W. Courtland Robinson2), Myung Ken Lee2), Ogcheol Lee3), Gilbert M. Burnham2) 1)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3)Red Cross College of Nursing				
분 야	의료관리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보장]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북한은 전 주민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선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1994 이후)의 경제난과 더불어 공급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능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2002년 7.1 경제조치를 취하였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빈부격차라는 또 다른 문제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 무상치료제'라는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최근의 북한보건의료체계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p> <p>방법: 중국 연변으로 넘어 온지 90일 미만의 탈북민 273명을 대상으로 2004년 수행된 북한에서 경험한 의료이용과 만족도에 관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구의 한 달 평균월급, 집의 크기, 그리고 떠나오기 전 1년 동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사용하였고, 이중 소유재산은 TV, 라디오, 재봉틀, 자전거의 4가지 물품에 대하여 가격의 가중치를 부여한 합계지수로 나타내었다. 통제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의료이용 경험변수, 의료기관 접근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의사의 친절성, 의사의 기술, 치료결과, 약품공급, 대기시간, 수돗물·전기 공급, 그리고 6개 항목 만족도를 합한 전체 만족도로써 총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전체 및 항목별 만족도와 경제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p> <p>결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각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대기시간과 수돗물·전기 공급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항목들도 5점 척도에서 모두 평균 3점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경제수준과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의 점수가 높았다. 만족도 7개 항목에 대해 소유재산지수가 공통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월급은 의사의 친절성과 수돗물·전기 공급에 있어서만 유의하였다. 전체만족도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지수와 월급이 만족도의 17.4%를 설명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경제수준은 대부분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단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p> <p>결론: 북한주민의 의료서비스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만족도의 차이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상실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p>					